

‘K-APEC’ 안전 개최를 위한 「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」 실시

-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K-APEC’을 위해,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관계기관, 300여명 참여해 경주 현지에서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실시
- 국민 100여명, APEC 참여국 관계자 등 참관, APEC 대비 대테러역량 점검·홍보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6일(금) 오후,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원 (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)에서 「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」을 주재하며, 대테러 관계기관의 「2025 APEC 정상회의」 대테러·안전관리 역량을 직접 점검하였다.

* (훈련 참여기관 / 인원) 11개 기관 / 300여명

-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^{주관}, 국가정보원, 국방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소방청, 환경부, 질병관리청, 원자력안전위원회, 월성원자력본부, 한국원자력연구원 등

○ 「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」은, 「2025 APEC 정상회의」 안전개최 지원 차원에서, 정상회의 시설 및 인근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 상황을 상정하고,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- 이를 위해, 행사 관련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▲드론테러 ▲사이버공격 ▲화생방테러 ▲해양테러 ▲시설 점거 및 인질 테러 ▲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였다.

○ 특히, ▲첨단신종드론(FPV드론*, 광섬유드론** 등)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, ▲주요 인프라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며, ▲각국 경제인 등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선에 대한 해양테러 상황을 상정·대응하는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테러기술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테러양상, 그리고 이번 APEC 정상회의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.

* 1인칭시점(First Person View) 드론: 드론 조종자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영상을 VR 고글을 통해 전송받아, 직접 드론 조종석에 앉아 조종하는 것처럼 운용하는 드론

** 광섬유드론: 무선전파 대신, 광케이블을 통해 조종기와 드론을 연결해 운용하는 드론

- 이번 훈련에는 국민참관단을 비롯하여, APEC 참여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. 「APEC 정상회의」를 앞두고, 우리 정부의 대테러·안전관리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, 일반 국민 100여명과 APEC 참여국 외교관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.
- 김 총리는 훈련 강평에서, “테러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, 드론·사이버공격 같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테러 위협 사례가 현실화 되고 있는 점을 보면, 더 이상 테러가 먼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”며,
 - “이번 APEC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”로, “선결요건으로서 ‘가장 안전한 K-APEC’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관계 기관이 소임을 다해주길” 당부하였다.
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	윤현주 (02-2100-2032)
		담당자	중 령	김성수 (02-2100-2024)

